

수세의 형태를 하수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길격(吉格)인 것이다.

계류수는 종택마을을 환포하듯이 감싸면서 궁수형태를 이루어 흘러가다가 분류하천인 용전천과 합수하고 있다. 합수처에는 중평솔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풍수적으로 화표라고도 한다. ‘화표’는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출중한 인물이 탄생하는 길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좋은 사격을 말한다. 따라서 종택의 입지유형은 장풍득수국을 이루고 있는 길지가 된다.

(14) 의성 구미리 아주신씨 오봉종택 [문 제187호]

조선 선조시 이조참별(吏曹參別) 신지제(申之悌)와 종제(從弟) 홍산훈도 신지문(鴻山訓導 申之問)과 같이 기지로 정하고 구호(龜湖)로 하였으며 그 후 남대천이 끼고 있는 앞 산 구릉이 거북과 유사하다 하여 구미(龜尾)로 하였다고 전해진다.¹⁶⁶⁾ 아주신씨종택(鵝洲申氏宗宅)은 오봉사당 · 낙선당(樂善堂)과 함께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는데, 오봉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경내에 있다.

종택마을을 풍수적 입지를 살펴보면 (그림 4-14)를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룡에 의한 내룡맥의 용량은, 낙동정맥에서 분맥(分脈)한 보현지맥에 의해 주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산¹⁶⁷⁾은 내룡맥을 뺀어 현무봉을 기봉한 후, 좌우로 활짝 가지를 뺀어내려 마을입지를 감싸는 보국을 이루었다.

현무봉의 중심룡맥은 좌선으로 내려와 종택으로 입수맥을 뺀 뒤, 혈장을 이루어 마을의 정주공간이 청룡 · 백호를 의지하여 입지하고 있다. 종택의 입지와 마주하는 향에 안산이 알맞은 거리에 중심봉우리와 좌향을 이루면서, 안산의 좌우측가지맥이 뺀어내려 장풍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신사가 완벽히 갖

166) 慶尙北道 教育委員會, 『慶尙北道地名由來總攬』, 1984, p.196

167) 마을 뒷산에 동삼, 백쟁, 백사 등 세 가지 보물이 있었다 하여 산 명칭을 삼보산(三寶山)이라 하였으며, 마을 정기를 오래 지속하여 후손이 번창하기를 기념하면서 선조들이 마을 뒷산과 마을 입구 맞은 산에 왕릉과 같은 무덤을 만들어 맞 무덤이라고도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어진 입지이다. 청룡·백호지맥은 순하게 서로 중명당을 감싸기 위해 살포시 지맥을 수계에 맞대고 있고, 현무봉 옆에는 계류수가 모여 지당(池塘)을 형성하고 있는데, 내룡맥이 물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혈처를 이룰 수 있는 명당길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4> 의성 오봉종택 풍수모식도

